

외대학보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EEKLY

<제797호>

2001년 12월 10일(월)



2002년도 등록금은 또 오르까요?
매년 인상되는 등록금, 어떻게 책정되고,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리성'으로 무장하고 춘拳头를 이기십시오.



외대 주변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자 무의탁 노인의 삶을 찾아갔습니다.

6.7 대학생들에게 경적식이 있다고?
이 음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미를 제기합니다.
기존의 비틀린 청자증트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의 움직임이 여기 있습니다.



학내 광고에도 새롭게 물고 있습니다.

달리 광고의 협조를 찾았습니다.

10 라이 라이언이 있는 나라.
베트남을 아닙니까?
우리시대 젊은 직업들이 베트남과 함께
하라는 모임을 운영중입니다. 그 현장에
실패 들어가보았습니다.



북한의 태극기로 알리려 KAL KAI 륙
파산, 진짜 그렇까요?

용인총학, 윤상필-우혜나 조 당선



23대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장으로 '나무를 심는 사람됨' 윤상필(동유럽·영어학 95)-우혜나(동양·미언어 98)가 선출됐다.
지난 달 29일(목) 개표 결과 총재직인원 6454명 중 3211명(50.22%)이 투표해 이 중 2813명

(86.79%)의 찬성표를 얻었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는 지난 11월 27일(화)부터 28일(목)까지 3일간 각 단과대학 건물 1층 로비와 교양관 로비에서 진행됐으며, 29일(목) 오후 6시부터 4시간동안 어문관 206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민경 기자
mlsophia@hanmail.net

관선이사 임기만료 통보

지난 달 29일(금) 현 관선이사회의 올해 12월 말로 관선이사진의 임기만료를 교육부에 통보했다. 하지만 후임 이사진 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제작동문교수회(회장 박철 교수)는 12월 들어 학내구성원들을 분위기로 점검한 가운데 관선 이사진 임기만료를 확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제작동문교수회는 지난 3월(월) 제작인원 40명 중 34명(위원장 포함)이 참가한 관선위원회를 열고, '관선이사체제의 의미란?' 등 기존 입장문을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입장문 3항은 '현행법'에 따라 초기 이사진을 구성하고 밟고 있다.

제작교수단문화 총무 강봉익(네덜란드)교수는 "현행법은 시립학교교수의 의미였다. 일부 학생들의 주장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바가 있다"며 "하지만, 특정한 인물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수시합격생

대거 탈락



하고 주변 환경에서 찾는 할머니의 나.

“가난보다 무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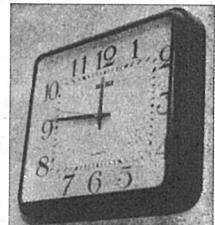
것은 그리움입니다”

의통으로 가는 조그만 품목길을 오르다보면, 일반인도 모르기 힘든 가파른 계단이 나온다. 이 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이문2동 255-301번지에 사는 이정도(81) 할머니의 집이 나온다. 할머니 방에 들어서면 역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방에는 온기대신 냉기만이 흐른다. 필자가 들어갈 때에도 비좁은 방이었다.

“지구촌에서 가장 못난 노파인 저를 찾아 주시다니...”라며 깜자기 찾아온 이를 반기는 그녀는 깜기로 인해 코를 풀썩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15년 전에 실명을 하고 이곳저곳 옮기다가 이문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동네분들이 잘해 주셔서 그저 고마운 마음뿐입니다”라고 말했다. 식사는 잘 하시는 나는 질문에 “일년 전부터 동대문구 복지관에서 도시락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달해줍니다. 그러나 하루 한번 배달되는 한끼분량의 도시락을 하루 세번 나누어 먹습니다.”라며 그녀의 심정을 밝혔다.

또한 그녀는 요즘 불면증과 깜기로 고생한다며 “저를 찾아오는 이가 많아지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저를 아는 사람에게 저의 소식을 알리기 부끄럽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쉼없이 이야기했다. 그녀의 절은 시절부터 몇 해전의 이야기까지 마치 그녀가 담고 있던 이야기를 필자에게 쏟아내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의 아픈 기억을 묻는 필자의 질문에는 대답을 회피하면서, 그녀는 옛 기억의 마련함을 때로는 슬픈 눈물로, 때로는 한숨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 그녀의 벽시계는
멈추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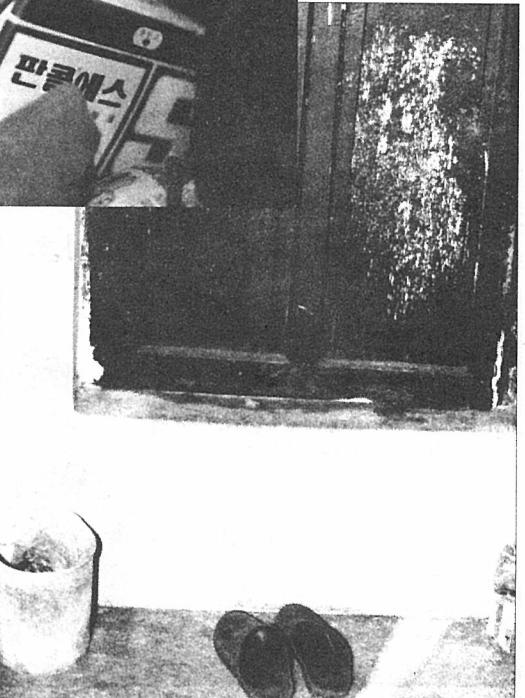


그녀는 알아 보이지 않아 필자의 작은 소리도 없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앞이 보이지 않아 그녀는 혼자서 방을 청소하지 못한다.
그래서 방은 항상 생활도구들이 날려있다외출을 하기 위해서는 가파른 계단을 오르고 내려야 한다.
오르기 힘든 길이 그녀의 활동에 제약을 준다

▶ 방에 보이는 악병과 악통들은 그녀가 병고에 시달리고 있음을 말해준다.

사진·글
김천열 기자



▶ 이씨는 좁은 방에서 혼자 살고 있다. 신발 한双과 그녀의 외로움을 보여주고 있었다.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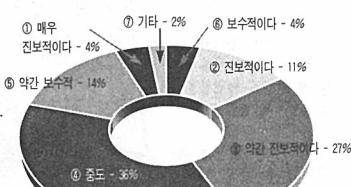
2001년 12월 10일 797호

주제기획

▶ 현재 '정치활동'의 범주로 봄을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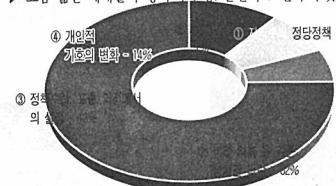
▶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실 정치에서의 지지 정당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당입니까?



▶ 요즘 젊은 세대들의 정치 무관심, 불신의 요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대학인에게 정치의 '식'이 없다고?

일상의 정치를 되찾자

"대학은 더 이상 새로운 정치가 생산되는 곳이 아니다"

대학생들이 점점 탄생지화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대학 학생회 선거가 끝난 지난주 주요 일간지들은 앞다투어 '대학이 아님'을 광고 제작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유인 즉슨 90년대 초부터 이데올로기 논쟁이 종결되고 취업난이 극심한 요즘 대학인들은 자기 발달의 불 고기가 더 중요해 정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주 본보가 실시한 학내 설문조사에서 '정치활동의 범주로 봄을 수 있을 만한 활동을 하는가'란 질문에 75%의 학생들이 '하지 않는'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정말로 대학생들이 '탈정치'를 넘어

실제로 서울배움터 '다함께' (전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전 문장 위원은 학생들의 일상적 지향과 정치가 너무나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계에 신봉여래부장 손석준 씨는 그의 칼럼을 통해 "정치혐오 또한 젊은 세대들이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누군가의 정치적 의도 속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전한다. 젊은 세대들이 정치로부터 무관심하게 하려니와 젊은 세대들이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누군가의 정치적 의도 속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로 지난 주 본보가 실시한 학내 설문조사에서 '정치활동의 범주로 봄을 수 있는 활동을 하는가'란 질문에 75%의 학생들이 '하지 않는'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정말로 대학생들이 '탈정치'를 넘어

실제로 서울배움터 '다함께' (전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전 문장 위원은 학생들의 일상적 지향과 정치가 너무나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정치란 필연적으로 부래한 것, 기성 정치인들의 정치적 놀음들로 비춰져 있는 상황에서 그 벽을 깨고 대학생들이 정치활동을 권하는 것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전한다. 시선을 임으로 돌려보면 학생회 내부에서도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학생회 신기관 투표는 다른 '대학 신문' (12월 8일자)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일정 경도 감소 채 복지사업에 중점을 둔 학생회 신기관 투표들을 비판하며 '일상의 정치활동을 학생들 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칭하고 있다.

정치외교학과 학회 POLITOPIA 회장 안홍태(30)군도, "매일 내 정치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그동안 일정 정도 좌절감도 맛보았다. 이런 지경은 학생회에서 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예를 들어 재단투쟁 하나를 하더라도 '교양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전한다. 예전보다 다양화된 학생들의 정치적 요구를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눈에 닿을 보이는 활동들이 적어졌다. 물론 네트워크나 개인 모임을 통한 대학인들의 정치적 욕구는 이전보다 활발히 표출되고 있다. 설문조사 대상은 재학생 70명 조사방법은 서면설문

만나보기 - '노무현의 젊은 벗' 모임 회장 진정희(성균관대 01) 양

정치적 패배의식 극복됐으면



'노무현의 젊은 벗' (노벗)은 어떤 활동을 하며 인체 결성되었나?

오는 5월 초에 결성되었다. '노벗'은 온라인 상에서 노무현을 홍보하는 활동을 한다.

노벗 활동을 하는 이유는?

노무현은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인권주의적인 사람으로는 없는 것 같고 이런 사람을 대학생들에게 많이 홍보해야겠다는 생각에서다.

무슨 활동을 주로 하나?

노무현 일기와 대학생들의 투표율을 높이

기 위해 홍보 운동을 펼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민주노동당의 경선 후보로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대의원들에게 투표권을 제대로 이해하기를 계획하고 있다. 노무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갖는다.

각 대학과 인터넷온라인 단체와도 연락하여 활동을 벌여 계획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요즘 대학생들의 투표율과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학생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이유를 선택해야 한다. 정치는 맞춤복이 아니라 기본복이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는 하여 적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학생들이 정치에 무관심할수록 누구에게 이 익이 돌아가는지 곰곰이 따져보야 한다.

요즘은 진보정당의 연대가 활발한데?

진보정당의 경우 현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본다. 하지만 나도 그들이 현실 정치에 참여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권정우 기자 tngy@hanmail.net

보도 - 정치권 관련 인터(ANT) 사이트

젊은 정치계릴라 '안티창' '이반사모'



~f33a/ 등이 그 애이다.
사이트의 내부는 게시판에서부터 인터넷 대화방, 비판과 대안, 정치 스타일 비판, 인터넷 논설이나 관련 기사 모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특정 정치인에 대한 인터는 차지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최근에는 정치인이나 경제발전기획원 등 사무 진지한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다.

이전에는 인터넷의 양 깊 써물을 보고 (노간과 회갑)이 자리한 갑자기 끝나는 이름을 지어놓고 생겨나고 있다. 작품소에서

지어준 이름은 "이끌립" - "이인재-

이 글에서 보듯 인터사이트 게시판의 글들은 인터넷이란 공간을 활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생각이나 단체를 공개적으로 살아가는 단체나 개인을 지칭한다. 다시 말하자면 편집샵의 반대 의미라 할 수 있다. 그런 인터사이트 중 네이버에는 가장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정치분야이다.

이회창 총장을 반대하는 '이회창 (www.artichang.ws)'을 비롯하여 민주당과 이인재의 원을 반대하는 '이반사모' (이인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 사이트 (www.kojein.com)가 있으며, 얼마전 복지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취하면서 '청와대는 친북적이다'는 발언을 해 화제가 된 '권오호안티' 사이트 (www.user.chollian.net/)

김종원 기자 bpress@hanmail.net

고려중국센터
www.china-center.co.kr

2001학년도 중국어 관광 가이드 시험
본원생 154명 합격! 완전석권!!

2002학년도 外大 동시통역대학원
본원생 10명 합격!

고려중국유학관 Guide to China

중국 전역의 150여개 종점대학
2002학년도 9월학기 상담 및 모집증
TEL: 737-2420 담당: 홍은주, 김화옥

겨울부료특강
• 매일 오후 1:00-1:50
생활중국어 (월,수,금) / 중국어회화전면 (화,목)
• 월말 전과정 공개강의 (12/26-12/31)

中國語 전문 학원

"기초 시작 8주면 중국어로 입이 열린다"

고 · 력 · 래 · 뾰 · 입 · 프 · 료 · 그 · 랩



1. 일반과정 - 중국어 마스터 필수코스
입문반부터 고급반까지 총7단계, 체계적인 실력증진
2. 외학과정 - 유학에 버금가는 현장회화
기초 회화부터 고급 프리토킹까지 총6단계
3. 특별과정 - 다양한 중국어 체험
스크린 회화취미, 무역회화 등 맞춤식 교육
4. HSK전문과정 - 초·중·고급 단계별 집중훈련
HSK 입문반부터 고급반까지, 중국어 각종 시험대비
5. 고시과정 - 통·번역 전문학습
관공통역가이드, 동시통역대학원 완벽 대비

1월 2일 개강 (현재 접수중)

2001학년도 裴大 동시통역대학원
합격생 100% 본원 출신에 이어

2002학년도 특차장학생
본원생 완전합격

다양한 예 택

- 폭넓은 장학제도
100% 출석장학금, 성적장학금, 1년장기 수강장학금 등
- 수강료 할인혜택
2주부 또는 2개월 이상 동시동록생
이익훈이학원(종로)과 동시동록생

▶ 12월 특별보너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기말고사 기간을 연기해 드립니다!

한국 속의 중국

고려중국어학원

1호선 종각역 737-8255

기고글 - 제한상영관 도입,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제한상영관, 표현의 자유 제한중



는 근거를 민든 것은 문화관광부안보다 나아진 것이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주요옹정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표현의 자유로 침해된다는 염려를 해제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현실적인 대안을 살펴보면, 첫째, 과연 어떤 영화가 제한상영과 등급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조건이나 관객조차 제한되는 영화를 제작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현장스케치 -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 정기회의 현장

문학으로 치유하는 전쟁의 상흔

12월 7일(금) 오후 7시 20분. 서울 미포구 이현동에 위치한 민족문화연구회의 사무실에는 열한 대5인의 추위를 가지고 속속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원래 장애진 모임 시간은 7시지만 여유를 사랑하는 문인들은 대체 시간을 늦춰 또렷한 느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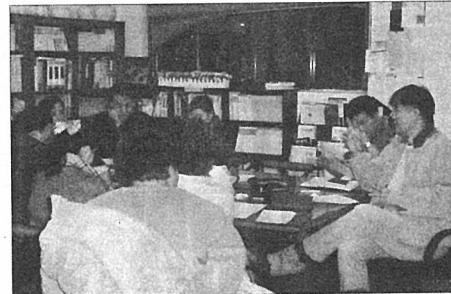
8시. 드디어 회의가 시작될 무렵, 20여명 넘치는 사무실 한쪽 회의실에 둘러앉은 인원은 줄잡아 스무 명이 넘는다. 회장 방현석 씨는 예의 사립종은 미소를 띠고 "추운데 많아 오셨네요. 저기 소개부터 먼저 할까요?" 하고 물었다.

"상계 백현원 의사 김경숙입니다"

"월남전에 참전했었구요. 박용길이라고 합니다."

"시 쓰고 있는 김경숙입니다"

돌이켜 자신을 소개하는 회원들의 연령 대의 작업은 베트남을 사랑하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 '이란' 모임 영성이 무색할 정도로 다양하다. 그들이 모임에 시작할 때는 소설가 김남길, 방현석씨 등 작가들이 주축이 됐지만 '방현석' 등을 통해 모임이 알려지면서 작년부턴는 일년인도 정회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모임의 충무를 맡고 있는 고영재(문화학과)씨의 설명이다. "베트남 하면 월남전과 베트남 정도로 끌어올리거나, 언론을 통해 베트남 일반학자들이 알리거나 서 젊은 어른들은 이 모임을 만들어 조용한 웃음으로 역사 비판 세우기를 시작했다. 정기모임을 통한 월남전의 역사, 문학과의 대회는接地气 않고 아파울 때에는 민족문화작가회와 베트남기자들이 함께 했던 때였다. '8년, 처음 모임이 베트남 때는 대회는 회의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때였다. 또, 베트남에서 '한·베트남 문화교류의 밤'도 최초로 성사되었으며 월남전을 소재로 한 회원 이대환씨의 소설 '슬루로 불릿'은 영화제작에 들어가고 있다 싶습니다."



이날 모임은 송년회를 겸한 것으로 그간의 사업보고와 내년 1월경으로 예정된 베트남 여행과 함께 베트남에 대한 정보집단 목표인자, 회원들의 친목도모가 주 목적이자 회설마이 할 것 같다'는 것이 대부분 회원들의 생각이었다.

시작부터 회의는 활기勃勃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회의는 아름사가 넘어 웃음으로 이어졌다. 비슷한 역사, 삶의 모습을 지닌 남족 나라는 회의에 대한 이들의 화해와 연대의 물질은 솔직함에서부터 계승됐다. 이어서 모임에 참여하는 그들의 마음은 베트남에 대한 학생인 이로써 내려간 감정과 같지 않을까? 일제교과서 외과 괴롭으로 이어진 이번 학술대회에 청중으로 민족감정과 같은 복합체가 한국의 의식과 생활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에는 민족전 속에 나타난 민족감정에 대한 평론을 풀어줄 예정이다.

학술부

만나보자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 회장 방현석(소설가)씨

"우리를 돌아보고 미래를 점쳐자"



모임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한다.

9년 뜻이 맞는 몇몇 문인들이 자기번성 을 통한 한국과 베트남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꾀하고자 하면서 취지에서 주도적으로 결성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베트남 문인들과의 교류, 글로써 베트남인의 진실을 알리는 작업, 한국에 체류중인 베트남 노동자 실태 파악 등을 해 왔다.

모임 활동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나 최근 한류열풍도 불구하고 있는 시기에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자기 번성을 통해 서로를 역사회적 단계를 충족해야 할 때다. 우리를 끓여보고 미래를 점쳐야 하는 것이다.

월남전을 소재로 한 몽동소설 '슬루로 불릿' 시나리오 작업중인 걸로 아는데 시나리오 집필은 일단 마무리했다. 아직 특별한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배우 섭외가 끝나면 글비로 활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

앞으로의 모임활동 계획

내년 2002년은 미처 한·베트남 수교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 의미가 더욱 같다. 일단 문학작품 번역을 통한 교류에 힘쓸 것이다. 또, 베트남 문인을 초청해 베트남 문학의 밤'도 기획중이다.

장서운 기자

보도 - 외국문화연구소 22차 학술대회 '세계의 민족주의와 민족문화'

세계화 시대 '민족' 이란?

"민족국가나 '사회'가 담고 있는 의미론적 틀로는 하나로 되어가는 오늘의 세계사회를 과언할 수 없다" 독일의 사회학자 루돌프 모이어다. 그의 말처럼 맥도널드의 코카콜라로 대표되는 세계화의 시장에서 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민족' 이란 개념은 배타성, 국수주의로 전개되는 민족주의와는 다른 면모로 다가온다. 지난 7일(금) 열린 우리학교 외국문화연구소의 스물 두 번째 학술대회 '세계의 민족주의와 민족문화'는 이같은 흐름에 진전하고자 명명하는 반면 이를 듣던 행자였다.

"보편성이 가치가 우위를 점하게 된 현실 속에서 각국의 민족적 특성을 만드는 데 기여한 문화를 찾아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외국의 예에서 결국 우리들의 생활상을 발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문화연구소 나승주 전임연구원이 전하는 이번 학술대회의 기획취지이다. 스페인, 중국, 한국, 미국, 캐나다 등 5개국의 역사적 사례를 통한 예술과 생활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결국 우리들의 생활에서 복합체가 한국의 의식과 생활에 적용하기 시작했다"며 협업상의 '민세전 속에 나타난 민족감정에 대한 평론'을 풀어줄 예정이다.

반면, 영어의 식민지 국가로 출발한 미국은 어떨까? 김우동(서강대 영문학) 교수는 "미국의 문학가들은 '한국에서 활동한 700명'에 56명이 지원된다. 문재경과 경정희 등 8명에 1명이 이르렀다. 이 중 대기업에 근무하던 대졸자 2명과 전문가 1명은 학부모 포함되어 있다는데... 이 소식은 들은 도로 들은 청소부이자씨 한미 '하하 오래살구 볼 일아내 근에 이거 편히 나만 구조조정 당하는 거 아니?'"

(민)

…최근 실시한 수원시 권선구청 환경미화원 공채에 환경미화원 79명 모집에 56명이 지원된다. 문재경과 경정희 등 8명에 1명이 이르렀다. 이 중 대기업에 근무하던 대졸자 2명과 전문가 1명은 학부모 포함되어 있다는데... 이 소식은 들은 도로 들은 청소부이자씨 한미 '하하 오래살구 볼 일아내 근에 이거 편히 나만 구조조정 당하는 거 아니?'"

(●)



학술 단신

15일(토) 한국동유럽·بلغ나라 학술대회

정기 학술대회 열어

한국동유럽·بلغ나라 학회(회장: 김규진 체코어과 교수)의 아홉번째 정기 학술대회가 오는 15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대학교 국제관 예경홀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중·동부 유럽의 지식인과 대학교육'으로, 500여년의 전통을 지니고 있는 유럽 중·동부의 대학교육에 대한 집중분석을 통해 한국과 대학의 역할을 모색해보고자 선정됐다. 토론시간에는 박규하(법학과)교수와 그의 학생으로 외교부상부 부장관인 김영원, 소파(SOFA)개정 국민행동집행위원장 김용한씨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1부 주제발표, 2, 3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세미나 열려

우리학교 법학과 박민구 교수(이강희 법학과 교수는 지난 6일(목)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1부 주제발표, 2, 3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2부 주제발표, 3, 4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3부 주제발표, 4, 5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4부 주제발표, 5, 6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5부 주제발표, 6, 7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6부 주제발표, 7, 8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7부 주제발표, 8, 9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8부 주제발표, 9, 10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9부 주제발표, 10, 11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10부 주제발표, 11, 12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11부 주제발표, 12, 13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12부 주제발표, 13, 14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13부 주제발표, 14, 15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14부 주제발표, 15, 16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15부 주제발표, 16, 17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16부 주제발표, 17, 18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17부 주제발표, 18, 19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18부 주제발표, 19, 20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19부 주제발표, 20, 21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20부 주제발표, 21, 22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21부 주제발표, 22, 23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22부 주제발표, 23, 24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23부 주제발표, 24, 25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24부 주제발표, 25, 26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25부 주제발표, 26, 27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26부 주제발표, 27, 28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27부 주제발표, 28, 29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28부 주제발표, 29, 30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29부 주제발표, 30, 31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30부 주제발표, 31, 32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31부 주제발표, 32, 33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32부 주제발표, 33, 34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33부 주제발표, 34, 35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34부 주제발표, 35, 36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35부 주제발표, 36, 37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36부 주제발표, 37, 38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37부 주제발표, 38, 39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38부 주제발표, 39, 40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39부 주제발표, 40, 41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40부 주제발표, 41, 42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41부 주제발표, 42, 43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42부 주제발표, 43, 44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43부 주제발표, 44, 45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44부 주제발표, 45, 46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45부 주제발표, 46, 47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46부 주제발표, 47, 48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47부 주제발표, 48, 49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48부 주제발표, 49, 50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49부 주제발표, 50, 51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50부 주제발표, 51, 52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51부 주제발표, 52, 53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52부 주제발표, 53, 54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53부 주제발표, 54, 55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54부 주제발표, 55, 56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55부 주제발표, 56, 57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56부 주제발표, 57, 58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57부 주제발표, 58, 59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58부 주제발표, 59, 60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59부 주제발표, 60, 61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60부 주제발표, 61, 62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61부 주제발표, 62, 63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62부 주제발표, 63, 64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63부 주제발표, 64, 65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64부 주제발표, 65, 66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65부 주제발표, 66, 67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66부 주제발표, 67, 68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67부 주제발표, 68, 69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68부 주제발표, 69, 70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69부 주제발표, 70, 71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70부 주제발표, 71, 72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71부 주제발표, 72, 73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주문군지위원회(2001)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아홉번 째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기획 -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의 의혹

KAL기와 함께 14년간 실종된 진실



"KAL 850은 폭파된 것이 아니라 실종되었다"
최근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이하 KAL기 사건)이 조작됐다는 주장이 여러 단체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요지는 KAL기 사건은 정치적으로 조작되었으며 KAL기 사건은 폭파사건이 아닌 실종사건이라는 것이다.

의혹제기는 '내외자본' 10월호에 담으로 실린 김현희 KAL기 사건 조작 의혹이라는 기사를 통해 시작했다. 14년동안 이 사건을 추적해온다는 전 감사원 위원 현준희

씨가 KAL기 사건에 대한 12기자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그 후 지난 달 25일(금) 경찰고문당구원사단과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KAL기 사건에 대해 스초 등수사 미진 김현희 사건 조사 등 7기자 의혹을 들어 관계당국에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KAL기 사건 14기 일에 29일(목)에는 서울 당시동의 KAL 858 회생자와 형법장부에서 진상규명에 동의하는 실종자 기록, 시민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김현희 KAL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준)'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은 처음부터 의혹

투성이"이며, 진실을 칠하려 규명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점점 증폭화이기는 양상이다.

사건이 일어난 지 14년, 아직까지 무엇이 풀리지 않았길래 계속 진상규명 요구가 나오는 것일까? 언론보도와 대책위의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에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분석해보았다.

너무나도 부실했던 수사·수색작업

858기는 1987년 9월 2일 앞바퀴가 나오지 않아 비상동체작동을 하는 등 과정에도 두 번씩이나 기체결합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기 출동은 고장수습 후 첫 출동이었는데, 당시 정부는 실종소식이 전해지자 사고인은 배제한 것으로 단정지었다.

'비행기사고기 불발박스'에 대한 수색작업은 기본인에도 정부는 불발박스를 찾기 위한 '수중공중위치탐지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사고 발생 단 10일째에 현지 조사단을 험수조사하고 기체나 탈진객의 유물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색작업을 중단시켜 버렸다.

대책위에서는 이를 "명백한 수사 소홀, 수사 조기종결"로 규정한다.

증거는 오직 김현희의 자백뿐

"시체도 없고 진해도 없고 추락지점도 모르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유가족 김호순씨의 말대로 1988년 1월 15일 인기부의 수사 발표로 대체로 15명의 인명을 10년간 찾을 수 없었던 비행기 등을 포함한 및 승객의 유류품 등의 직접 증거들은 없고 오직 김현희의 진술에만 의존해 비행기가 폭파되었다고 했다. 기체나 유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적으로 김현희의 진술만 믿고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2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현희 변호사가 "내가 만약 김현희씨의 변론을 맡았다면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했을 것이다"라는 말은 김현희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자백 외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 속의 소녀는 김현희가 아니었다

김현희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증거로 당시 안기부는 김현희의 일기 사진을 몇 장 내놓았다. 72년 11월 광양 남북교류위원회 위원행사 당시 11인승 김현희가 남측 대표에게 꽃을 전달하는 사진과 일본 공산당집사에 실린 꽃을 든 김현희의 사진이었다.

그러나 안기부가 사진 속의 인물로 지목했던 김현희는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정희나이라는 주장이 있으며, 정희나 자신이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한다.

사람의 얼굴에서 귀는 성장하면서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

이 학계의 정설이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사

진속의 소녀들은 외모가 도통하지만 김현희는 귓볼이 거

의 없는 솔직한 얼굴이 라는 한다. 즉 사진 속의 소녀는 김현희가 아니라는 얘기다.

급입院이 티짜운다는 의혹들... 정치공작일 가능성

최근에 정치적으로 이용된 조사사건으로 밝혀진 수지 김 사건도 KAL기 사건과 같은 해인 1987년에 발생했다. 1987년은 6월항쟁으로 민주화 열기가 드높았고, 대중琅琊山이 있었던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였다. 미구나 김현희는 대통령 선거 하루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고 실제 대선후보에 카더라인 영향을 끼쳤다.

이런 상황을 근거로 대책위에서는 KAL기 사건이 '안보 국정'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공작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시한다.

실제로 당시 일본 언론은 이 사건이 대통령 선거 18일 앞두고 터진 사건이라며 보щен의혹을 제기했다.

사건이 일어난 후 14년이 흐르는 동안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보인다. 오히려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혹들과 사건조작의 증거들은 사이에서 1년 전, 사건지 115명의 생명과 수많은 유가족들의 한을 푸는 진상규명사업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양창모 기자
hufshan@hanmail.net

만나보기 - 대책위(준)집행위원장 최규일씨

"정치적으로 이용됐을 것"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데 대책위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87년 사건 당시 노동운동을 한 회로 김복에 있었다. 그 당시 KAL기 사건에 대한 의혹을 대자보에 쓰니 불길한 대화생들이 김복에 들어와서 그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며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KAL기 사건을 정의내린다면

'미스테리'다. 의혹에 기록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다. 정치적 목적이 깊게 도사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물적 증거 하나 없이 범인의 자백으로 사건을 종결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진상규명이 이뤄졌을 때 국내외로 어떤 결과가 예측되는가

대책위에서 펼친는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첫째로 대책위 현대사를 올바로 전달할 수 있게 하고, 둘째로 남북, 북미 관계의 협상을 일조하는데, 마지막으로 국부수수연론들의 입장을 듣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조선·중앙·동·3개 주요 신문에서 보도를 하지 않는 등 언론이 이 사건에 소홀하는지는 저작자 있다

언론단체들이 정치부의 일력을 기록하는 것으로 짐작한다. 예를 들어 문화방송(MBC)에서는 지난 두 달여간 준 비례로 이 사건 관련 방영률을 28·29일경에 내보낸 예정이었는데 김기현 대스페인 대목에서 방송하지 못했다. 끌려지 않고 계속 진상규명을 촉구해 진실을 밝히고자 밀겠다.

* 대책위(준)은 7일(금)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1차회의를 열어 사업계획안, 운영규칙안, 조직체계 및 인선안을 검토, 의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날 회의에서 노동자들은 이 사건의 의혹을 일반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일단 대책위는 오는 12일(수) 인사동에서 100만인 서명운동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양창모 기자
hufshan@hanmail.net

장관은 진정한 진실을 확보해내기 위해 종교증언으로 이동했다.
"농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농민기부를 부르며 진행하는 거리행진은 많은 시민들의 주장을 막았다. 이는 지켜보던 박호순(40)씨는 "이러한 농민들은 보니 마음이 아프다"며 "많이 남았는데 쌀을 꾹 넣을 필요가 있다"며 외아 했다. 또한 광장시민에서 당시를 한눈에 회상삼았다.

이어 정부는 농민들이 농사를 꾹 하면서 다른 나라에게는 기여하는 요구를 청탁하고 허락해 왔다. "개방화와 세계화로 허물까지는 우리나라를 통해 세계로 미국에 갖다주는 것이나 다른데 없다"고 끝마쳤다.

이번 농민대회는 농민들의 본능이 국제에 달해 있음을 어

을 알 시 언제라도 다시 폭발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해졌다. 농업이 한 나라의 균형산업이라는 것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부는 이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어 정부는 농민들이 농사를 꾹 하면서 다른 나라에게는 기여하는 요구를 청탁하고 허락해 왔다. "개방화와 세계화로 허물까지는 우리나라를 통해 세계로 미국에 갖다주는 것이나 다른데 없다"고 끝마쳤다.

이번 농민대회는 농민들의 본능이 국제에 달해 있음을 어

을 알 시 언제라도 다시 폭발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해졌다. 농업이 한 나라의 균형산업이라는 것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부는 이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어 정부는 농민들이 농사를 꾹 하면서 다른 나라에게는 기여하는 요구를 청탁하고 허락해 왔다. "개방화와 세계화로 허물까지는 우리나라를 통해 세계로 미국에 갖다주는 것이나 다른데 없다"고 끝마쳤다.

이번 농민대회는 농민들의 본능이 국제에 달해 있음을 어

을 알 시 언제라도 다시 폭발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해졌다. 농업이 한 나라의 균형산업이라는 것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부는 이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어 정부는 농민들이 농사를 꾹 하면서 다른 나라에게는 기여하는 요구를 청탁하고 허락해 왔다. "개방화와 세계화로 허물까지는 우리나라를 통해 세계로 미국에 갖다주는 것이나 다른데 없다"고 끝마쳤다.

이번 농민대회는 농민들의 본능이 국제에 달해 있음을 어

을 알 시 언제라도 다시 폭발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해졌다. 농업이 한 나라의 균형산업이라는 것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부는 이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어 정부는 농민들이 농사를 꾹 하면서 다른 나라에게는 기여하는 요구를 청탁하고 허락해 왔다. "개방화와 세계화로 허물까지는 우리나라를 통해 세계로 미국에 갖다주는 것이나 다른데 없다"고 끝마쳤다.

이번 농민대회는 농민들의 본능이 국제에 달해 있음을 어

을 알 시 언제라도 다시 폭발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해졌다. 농업이 한 나라의 균형산업이라는 것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부는 이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어 정부는 농민들이 농사를 꾹 하면서 다른 나라에게는 기여하는 요구를 청탁하고 허락해 왔다. "개방화와 세계화로 허물까지는 우리나라를 통해 세계로 미국에 갖다주는 것이나 다른데 없다"고 끝마쳤다.

이번 농민대회는 농민들의 본능이 국제에 달해 있음을 어

을 알 시 언제라도 다시 폭발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해졌다. 농업이 한 나라의 균형산업이라는 것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부는 이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어 정부는 농민들이 농사를 꾹 하면서 다른 나라에게는 기여하는 요구를 청탁하고 허락해 왔다. "개방화와 세계화로 허물까지는 우리나라를 통해 세계로 미국에 갖다주는 것이나 다른데 없다"고 끝마쳤다.

이번 농민대회는 농민들의 본능이 국제에 달해 있음을 어

을 알 시 언제라도 다시 폭발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해졌다. 농업이 한 나라의 균형산업이라는 것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부는 이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어 정부는 농민들이 농사를 꾹 하면서 다른 나라에게는 기여하는 요구를 청탁하고 허락해 왔다. "개방화와 세계화로 허물까지는 우리나라를 통해 세계로 미국에 갖다주는 것이나 다른데 없다"고 끝마쳤다.

이번 농민대회는 농민들의 본능이 국제에 달해 있음을 어

을 알 시 언제라도 다시 폭발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해졌다. 농업이 한 나라의 균형산업이라는 것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부는 이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어 정부는 농민들이 농사를 꾹 하면서 다른 나라에게는 기여하는 요구를 청탁하고 허락해 왔다. "개방화와 세계화로 허물까지는 우리나라를 통해 세계로 미국에 갖다주는 것이나 다른데 없다"고 끝마쳤다.

이번 농민대회는 농민들의 본능이 국제에 달해 있음을 어

을 알 시 언제라도 다시 폭발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해졌다. 농업이 한 나라의 균형산업이라는 것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부는 이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어 정부는 농민들이 농사를 꾹 하면서 다른 나라에게는 기여하는 요구를 청탁하고 허락해 왔다. "개방화와 세계화로 허물까지는 우리나라를 통해 세계로 미국에 갖다주는 것이나 다른데 없다"고 끝마쳤다.

이번 농민대회는 농민들의 본능이 국제에 달해 있음을 어

을 알 시 언제라도 다시 폭발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해졌다. 농업이 한 나라의 균형산업이라는 것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부는 이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어 정부는 농민들이 농사를 꾹 하면서 다른 나라에게는 기여하는 요구를 청탁하고 허락해 왔다. "개방화와 세계화로 허물까지는 우리나라를 통해 세계로 미국에 갖다주는 것이나 다른데 없다"고 끝마쳤다.

이번 농민대회는 농민들의 본능이 국제에 달해 있음을 어

을 알 시 언제라도 다시 폭발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해졌다. 농업이 한 나라의 균형산업이라는 것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부는 이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어 정부는 농민들이 농사를 꾹 하면서 다른 나라에게는 기여하는 요구를 청탁하고 허락해 왔다. "개방화와 세계화로 허물까지는 우리나라를 통해 세계로 미국에 갖다주는 것이나 다른데 없다"고 끝마쳤다.

이번 농민대회는 농민들의 본능이 국제에 달해 있음을 어

을 알 시 언제라도 다시 폭발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해졌다. 농업이 한 나라의 균형산업이라는 것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부는 이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어 정부는 농민들이 농사를 꾹 하면서 다른 나라에게는 기여하는 요구를 청탁하고 허락해 왔다. "개방화와 세계화로 허물까지는 우리나라를 통해 세계로 미국에 갖다주는 것이나 다른데 없다"고 끝마쳤다.

이번 농민대회는 농민들의 본능이 국제에 달해 있음을 어

을 알 시 언제라도 다시 폭발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해졌다. 농업이 한 나라의 균형산업이라는 것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부는 이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어 정부는 농민들이 농사를 꾹 하면서 다른 나라에게는 기여하는 요구를 청탁하고 허락해 왔다. "개방화와 세계화로 허물까지는 우리나라를 통해 세계로 미국에 갖다주는 것이나 다른데 없다"고 끝마쳤다.

이번 농민대회는 농민들의 본능이 국제에 달해 있음을 어

을 알 시 언제라도 다시 폭발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해졌다. 농업이 한 나라의 균형산업이라는 것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부는 이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어 정부는 농민들이 농사를 꾹 하면서 다른 나라에게는 기여하는 요구를 청탁하고 허락해 왔다. "개방화와 세계화로 허물까지는 우리나라를 통해 세계로 미국에 갖다주는 것이나 다른데 없다"고 끝마쳤다.

이번 농민대회는 농민들의 본능이 국제에 달해 있음을 어

을 알 시 언제라도 다시 폭발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해졌다. 농업이 한 나라의 균형산업이라는 것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부는 이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어 정부는 농민들이 농사를 꾹 하면서 다른 나라에게는 기여하는 요구를 청탁하고 허락해 왔다. "개방화와 세계화로 허물까지는 우리나라를 통해 세계로 미국에 갖다주는 것이나 다른데 없다"고 끝마쳤다.

이번 농민대회는 농민들의 본능이 국제에 달해 있음을 어

을 알 시 언제라도 다시 폭발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해졌다. 농업이 한 나라의 균형산업이라는 것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부는 이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어 정부는 농민들이 농사를 꾹 하면서 다른 나라에게는 기여하는 요구를 청탁하고 허락해 왔다. "개방화와 세계화로 허물까지는 우리나라를 통해 세계로 미국에 갖다주는 것이나 다른데 없다"고 끝마쳤다.

이번 농민대회는 농민들의 본능이 국제에 달해 있음을 어

을 알 시 언제라도 다시 폭발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해졌다. 농업이 한 나라의 균형산업이라는 것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부는 이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어 정부는 농민들이 농사를 꾹 하면서 다른 나라에게는 기여하는 요구를 청탁하고 허락해 왔다. "개방화와 세계화로 허물까지는 우리나라를 통해 세계로 미국에 갖다주는 것이나 다른데 없다"고 끝마쳤다.

이번 농민대회는 농민들의 본능이 국제에 달해 있음을 어

을 알 시 언제라도 다시 폭발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해졌다. 농업이 한 나라의 균형산업이라는 것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부는 이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어 정부는 농민들이 농사를 꾹 하면서 다른 나라에게는 기여하는 요구를 청탁하고 허락해 왔다. "개방화와 세계화로 허물까지는 우리나라를 통해 세계로 미국에 갖다주는 것이나 다른데 없다"고 끝마쳤다.

이번 농민대회는 농민들의 본능이 국제에 달해 있음을 어

을 알 시 언제라도 다시 폭발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해졌다. 농업이 한 나라의 균형산업이라는 것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부는 이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어 정부는 농민들이 농사를 꾹 하면서 다른 나라에게는 기여하는 요구를 청탁하고 허락해 왔다. "개방화와 세계화로 허물까지는 우리나라를 통해 세계로 미국에 갖다주는 것이나 다른데 없다"고 끝마쳤다.

이번 농민대회는 농민들의 본능이 국제에 달해 있음을 어

을 알 시 언제라도 다시 폭발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해졌다. 농업이 한 나라의 균형산업이라는 것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부는 이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어 정부는 농민들이 농사를 꾹 하면서 다른 나라에게는 기여하는 요구를 청탁하고 허락해 왔다. "개방화와 세계화로 허물까지는 우리나라를 통해 세계로 미국에 갖다주는 것이나 다른데 없다"고 끝마쳤다.

이번 농민대회는 농민들의 본능이 국제에 달해 있음을 어

을 알 시 언제라도 다시 폭발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해졌다. 농업이 한 나라의 균형산업이라는 것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부는 이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어 정부는 농민들이 농사를 꾹 하면서 다른 나라에게는 기여하는 요구를 청탁하고 허락해 왔다. "개방화와 세계화로 허물까지는 우리나라를 통해 세계로 미국에 갖다주는 것이나 다른데 없다"고 끝마쳤다.

이번 농민대회는 농민들의 본능이 국제에 달해 있음을 어

을 알 시 언제라도 다시 폭발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해졌다. 농업이 한 나라의 균형산업이라는 것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부는 이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어 정부는 농민들이 농사를 꾹 하면서 다른 나라에게는 기여하는 요구를 청탁하고 허락해 왔다. "개방화와 세계화로 허물까지는 우리나라를 통해 세계로 미국에 갖다주는 것이나 다른데 없다"고 끝마쳤다.

이번 농민대회는 농민들의 본능이 국제에 달해 있음을 어

을 알 시 언제라도 다시 폭발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해졌다. 농업이 한 나라의 균형산업이라는 것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부는 이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어 정부는 농민들이 농사를 꾹 하면서 다른 나라에게는 기여하는 요구를 청탁하고 허락해 왔다. "개방화와 세계화로 허물까지는 우리나라를 통해 세계로 미국에 갖다주는 것이나 다른데 없다"고 끝마쳤다.

이번 농민대회는 농민들의 본능이 국제에 달해 있음을 어

을 알 시 언제라도 다시 폭발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해졌다. 농업이 한 나라의 균형산업이라는 것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부는 이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어 정부는 농민들이 농사를 꾹 하면서 다른 나라에게는 기여하는 요구를 청탁하고 허락해 왔다. "개방화와 세계화로 허물까지는 우리나라를 통해 세계로 미국에 갖다주는 것이나 다른데 없다"고 끝마쳤다.

이번 농민대회는 농민들의 본능이 국제에 달해 있음을 어

을 알 시 언제라도 다시 폭발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해졌다. 농업이 한 나라의 균형산업이라는 것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부는 이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어 정부는 농민들이 농사를 꾹 하면서 다른 나라에게는 기여하는 요구를 청탁하고 허락해 왔다. "개방화와 세계화로 허물까지는 우리나라를 통해 세계로 미국에 갖다주는 것이나 다른데 없다"고 끝마쳤다.

이번 농민대회는 농민들의 본능이 국제에 달해 있음을 어

을 알 시 언제라도 다시 폭발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해졌다. 농업이 한 나라의 균형산업이라는 것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부는 이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어 정부는 농민들이 농사를 꾹 하면서 다른 나라에게는 기여하는 요구를 청탁하고 허락해 왔다. "개방화와 세계화로 허물까지는 우리나라를 통해



어머니

빈 나무 가지마다
눈꽃이 피었을 때
마리 수건 쓴 어머니가 보인다

사라 문을 조급 열고 마당을 지나
현 밤국을 떠나기 전
내 유년의 경강고무성이
이제도 당신의 품 안에 놓여 있다

그날 나는 양을 떠왔다
낮은 곳으로 떠나는
내 사랑의 꿈을
안아 같이 잡아 주시던 어머니

한 소주에 나를 거는
타타임의 꿈 속에
오늘은 나를 잃은 양이 되어
굽아드는 어머니

김윤호
(시인·행정학 박사과정)

영화평 - '고양이를 부탁해'를 보고

“내가 스무살땐 말이자…”

'고양이를 부탁해'는 애매한 '경계'에 대한 영화는 고양이라는 매개체로 인천이라는 공간을 스무살이라는 우리의 과거시기와 연어낸다. 그리고 이 세 단어를 안고서 굽까지 호흡해간다.

애원동물과 애생동물의 경계에 서 있는 고양이. 키워본 사람은 알겠지만, 개는 습성상 주인에게 품으로 끌어온다. 고양이는 주인과 자신을 안아 같이 잡아 주시던 어머니

혼자 남겨지며 그들의 이상으로 잘 살아야겠다는 순간이 필요한 것은 같은 묘한 생명체. 이러한 특성은 이 스무살 다섯 친구들과 어쩐지 닮아보인다. 공식적으로 성인이 되는 나이. 하지만 불안전에 보이는 그들이므로

광역시민 동시에 사람 주변의 도시인 인천에 대한 메타포와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이라는 두 장소의 이질성이 그것이다. 전자는 과거 국제 회의의 상장이었고, 후자는 지금 그렇다. 영화에 등장하듯 동네나 노동자들의 판문으로로서의 어수선한 인천항을 빠져 나오는 것이 새상을 향해 밝은 스무살이라는 통과의례와 맞닿아 있다.

그리고 스무살. 그렇기는 않는데 이상하게 우리 영화 속 스무살 여자들은 자자하게 로맨스를 즐기거나 애로소에 빠져 있곤 했다. 감독은 무관한 일방 속에 이루어진 진드리지 않지만 진짜 스무살은 아무것도 없다. 이 영화가 포함한 감상의 경우와 같이, 고양식이 구사하는 한국의 깊이와 넓이에서 벗은 길을 찾고자. 또한 이는 나 자신의 한국이 너 무도 알고 싶을 때 대한 내면 기한한 부끄러움의 물음이기도 해.

'사람의 말, 말들의 사랑'은 서른적인 '며느리를'을 보면 '가시나'로부터 시작하여 '호박나물'로 끝나는 말 묘음의 본연을 다하고 있다. 이동면 멎을말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주제에 대해 개인적 관심을 가진 이라면 당연히 물을 수 있지만 당시의 미움과 즐오는 중화되었느냐고 당신의 상처는 치유되었느냐고.

작가는 직접 대답하지 않아. 치유는 말과 사람을 집요하게 돌아 드려보는 번설의 결과가 아니니까. 그것은 도이며 말과 사람의 내밀함에 들어붙어 더욱 내적으로 침침하게 만들고 속병의 고질화를 촉진길 뿐이니. 치유하는 말과 사유는 오히려 '효'과 '애'가 가진 것으로 구체화하고 직접적인 자체의 투입을 뜻하는게 아니라(합법 외시는 질료적 약재의 투여를 최후로 선택한지 않은가) 그것은 다만 치유와 비스무레한 것. 치유는 느낌에의 '접속'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와 '(설명)파도 같지 않을까. 마치 연애가 그려하듯이. 바람결에 깃발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움직이듯이 그렇게.

2001. 1. 12

leeuyjin@dreamwiz.com

은 엘마와 루이스가 보여줬던 여성의 이미지와는 다른 캐릭터이다. 이들은 남성에 의한 피해자이 아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세상이 궁금한 독립적인 캐릭터이다. 마지막 장면 역시, 엘마와 루이스가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세상을 버리는 것과 같다.

누구에게나 고양이 같은 시절이 있었다. 낯선 세계로 비상금 끔금하고 인생의 고비에는 미처 몰두하지 않아야 가로를 거쳤으며 주변 존재들에게 시나구를 받았으나 삶에 남기곤 했다. 빛이 흘린 날은 무책임하게 낮잠을 청했고, 허기의 순간마다 꿀꿀새운 도도함으로 숨기곤 했다. 문득 그리워지면 지팡이에 울었다.

하늘을 보면 뭔가 가로를 거쳤으며 주변 존재에게 시나구를 받았을 때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아님 그게 시간뿐이었다. 그 때 내가 고양이였을 때 시간은 의미가 없었다. 이 시장, 변신을 꿈꾸는 그 순간만이 중요했다. 스무살은 무지개 너머 어딘가에 미쳐버린 면 훗날이 있을지 알고 배를 타니 떠나면 아무도 모르는 대로에 달을 것만 같았다.

내가 손을 잡은 친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고,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면, 나는 존재 혹은 부제가 증명될 수 있다면 무언가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 아무도 스무살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 영화는 알아보길 바랍니다. 이 영화 속에는 영광뿐만 젊음이 있다. 그러나 투명하지는 않아서 우리의 입김을 필요로 한다.

진실을 담아 민족을 바라보는 민족처럼 고양이 품으로 뒤집어들 것이다. 쓰다듬기 전, 그 연두색 눈을 보고 잠시 되감기 버튼을 눌러볼 수도 있다.

얼마 전 이런 문구를 읽었다. - 스무살 때, 우리들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 하지만 후에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한다. "내가 스무살 땐 말이지..."

이 영화를 비롯한 〈와이키키 브리더스〉, 〈라 이방〉, 〈내비〉-소위 흥행에 실패한 한국영화들-네 영화는 지금 관객들의 노력으로 및 국장에서 재생되고 있다.

한국영화계의 현실에 대한 비판은 모두의 귀에 뭇이 박혔다. 영화들은 작품은 평생에 얼마 되지 않는다. 그 발견은 자신의 철학이 견고해야 가능할 것이다. 어떤 조류에도 혼들리지 않도록, 단지 지금 한국 영화계에 이 작가 주의 영화들이 필요한 것이 그들도 못하는 영화들을 기록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조금은 흡을한다.

그리고 여성감독의 계보를 잇는 이 영화의 정체는 감독, 일순례, 변영주 등의 감독과 그 외 씨네 21, 키노의 편집감 안정숙, 이연호 등의 여성 영화들이 '여성' 감독이라는 말이 자리지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

이경민
(서양·독일어 99)

2부
이번호는 지역관계상 사진수를 줄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바랍니다.

오대화보

이유진의 책 세상 - 4. 사랑의 말, 말들의 사랑 - 고종석 지음, 문학과지성사, 1996

상처를 치유하는 생생한 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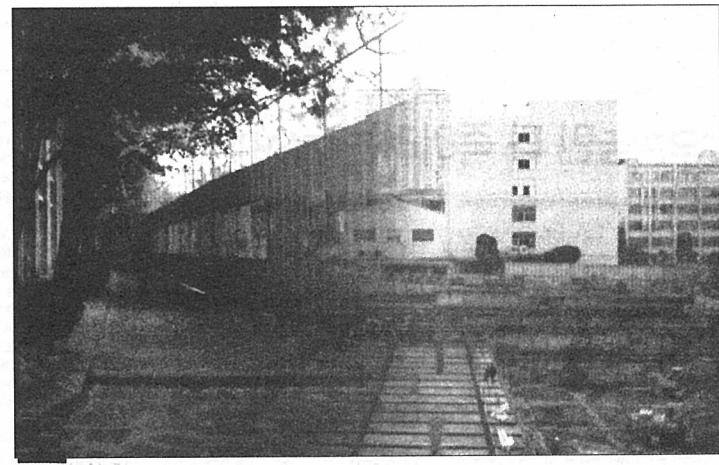
○에게...

한국어를 정확하고 실감있게 구사하는 문필가들이 많지만, 한국어를 한국어답게, 즉 그 말을 분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 이와 더불어 그 말에 실린 모국어적 경감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흥이 있다. 이는 비단 고유어를 많이 사용하는가 혹은 그 반대로 외래어에 파묻힌 글을 즐기는가, 라는 국어심의 미덕이 속한 문제는 여기 때 문이겠지. 여기엔 글을 이치에 달게 풀어나가는 형식의 묘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진정성이라는 글쓰기의 보편적 요구와 함께, 그런 내용과 형식이 한국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통하고 구현되는 이상, 결코 저마다 수 있는 일의 태생적 경계-말의 둠동아리를 보여줄 것에 대한 요청이 공생하고 있을 테네.

물론, 그러한 글쓰기에 요구된 한편으로 절실히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막연한 것이기도 하며, 위의 기준에 일치하는 문필가를 고를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겠지. 그리고 서로간의 선택지들에 대해 다양한 비평과 수정이 휘해질 것이다. 결연하고 말을 바꾼 때면, 사람마다 각자의 애호하는 문필가들을 (당연히!) 만날 수 있다는 말. 단, 그때 자신들의 선택지를 응호하는 타인의 선택지에 대한 존중이 결여될 수 없을지도 몽onen이야. 그런 기준을 두고 본다면 내게 한국어로 글쓰기의

참다운 모양을 보여준 이 가운데 하나가 고종석인데, 나 자신, 비판하지 않는 지점이란 비판되지 않는 지점이나 매개기지로 루미한 것이라자신하는 편으로 그의 글 역시 내 나를 비판의 도미 위에 올리길 바라리지 않지만, 그의 도미를 잊을 적이다. 일흔 스스로가 매혹됨을 느껴오지 않을 때가 없어. 이는 아버지 김소진의 경우와 같이, 고양식이 구사하는 한국의 깊이와 넓이에서 벗은 길을 찾고자. 또한 이는 나 자신의 한국이 너 무도 알고 싶을 때 대한 내면 기한한 부끄러움의 물음이기도 해.

'사람의 말, 말들의 사랑'은 서른작년 '문화과지성사', 1996는 여드레상의 범접을 반납하고 소진 일종의 '사람의 말 목록'이라 할 수 있어. 작가는 '제랄리즘 종사자로서 고종석은 스스로를 '기자'라고 지칭하지만 이 점은 문학 단장을 끝 때도 미친가지는데, 이런 자의식의 구조를 읽어보고도 유풍심이 문득 불거져 물려오기로 하나- 몽로비아이에서 파리로 이시간 새 아파트의 소울 때문에 미움속으로부터 치마는 미움과 신경질을 즐화시키고자. 이 책을 냈다고 하네. 그래서 여기 실린 글들은 일종의 '경우의' 결과의 기록이 할 터인데. 그런 식으로 쥐어진 생각으로부터 길어진 말들은, 그러나 경화된 사고에 종속된 브론관의 언어, 박재원 모형의 언어가 아니라. 오히려 그 말들은 스스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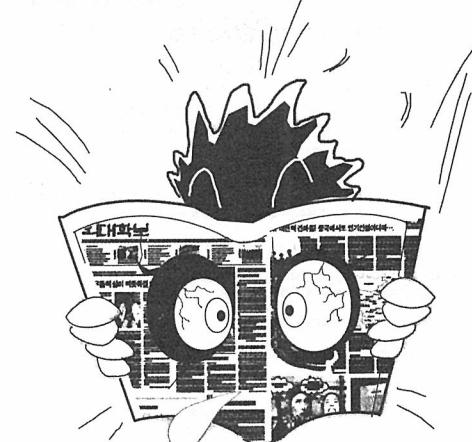


끊어진 방음벽

정기용(서양·영어 95)

학보 잘

읽으셨습니까?



내년에도 당근과 채찍으로 외대화보■ 준마로 만들어 주세요

hufs.ac.kr/~weekly

민족자주인론
오대화보